

밀양으로... 강정마을로... 민주·인권 현장 지킴이

**광주인권상 수상자들
오월정신의 전도사로**

2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전남 시도민과 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궈낸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광주 정신’은 우리나라 민주·인권 신장에 기여한 중요한 역사적 산물인데, 점차 잊혀져 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지난 9일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사)전국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전신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강민조(73) 이사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국내의 민주화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유가협은 현재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민주·인권·평화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현재 유가협 회원 수는 모두 129명.

유가협은 1970년~1990년대까지 강경대·이한열·전태일 등 민주화운동 과정 등에서 희생된 이들의 부모 모임으로, 민주·인권운동은 물론 의문사 관련 사안 등에 대한 집회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 11월부터 100여명의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400여일 동안 천막농성을 벌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유가협은 지난 2002년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아픔을 딛고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워 온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인권상’ 수상 단위로 선정됐다. 유가협은 지난해 민주화 운



(사)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6일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유가협 사무실에 설치된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림은 5·18 항쟁지 중 한 곳인 북구 운암동 동운교가 주변에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대항하는 모습.

민주화운동 희생자 부모들 모임... 전국 회원 129명

민주화 보상·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전인차

청소년 민주·인권 체험교실 운영 광주 정신 알리기

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기념공원’(15만㎡·공정률 85%)을 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유가협은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이 완공되면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닫는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

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유가협은 5·18과도 인연이 깊다. 회원 중 상당수가 5·18 당시 광주·전남지역에서 살면서 5·18을 직접 겪은 이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이 때문에 유가협은 해마다 5·18이 되면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

문, 오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한다.

강 이사장은 “‘입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과 5·18 기념식 제정 문제로 광주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민주화가 갈수록 퇴보하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가협은 제주 강정마을·경남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 집회 등 전국 각지의 집회 현장을 다니면서 당사자들을 격려해주고 있다. 자신을 역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름 모를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만큼 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게 이들이 집회 현장을 찾아가는 이유다.

유가협은 영종 서울 사무실에서 민주·인권 체험교실을 진행 중이다.

이곳엔 매년 5000명 이상의 전국의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이 찾아오는데, 이곳에서 무료로 먹고 자면서 민주화운동 과정과 의미 등에 대해 배운다는 것이다.

강 이사장은 “학생들에게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이들 학생이 민주화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알아야 소중함도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5·18을 빼놓고선 국내 민주화를 말할 수 없다. 5·18 당시 많은 희생자들 덕분에 우리가 민주화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에게 광주 정신의 위대함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5·18을 빼놓고선 국내 민주화를 말할 수 없는데도, 갈수록 5·18이 왜곡되고 폄하되는 등 역사적 진실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아쉽다”며 “더 이상 민주화가 퇴보돼선 안 된다. 점차 국민이 민주화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 같다. 5·18을 잊어선 안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서울=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18교육관이 지난해 개최한 5·18전국고등학생 토론회의 한 장면.

5·18교육관 문 열었다

**초·중·고·대학생 민주·인권 체험 학습
5월 광주정신 시대적 가치로 계승·발전**

5월 정신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소통과 공감의 교육장인 ‘5·18 교육관’이 최근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5·18교육관(관장 위인백)은 연면적 2793㎡(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중개축, 100여명이 유스호스텔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최첨단의 강의실 및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

5·18교육관은 초·중·고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인권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1일, 1박2일, 2박3일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표> 1박짜리 교육은 체험과 답사 위주로 운영되며, 1박2일 형태는 ▲첫날은 답사와 체험, 영상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둘째 날은 토론과 발표 및 공동체 게임(민주인권 의식을 선양하는 공동체 놀이) 등으로 구성돼 있다.

2박3일의 경우는 ▲첫날은 교육생간 소개, 교육 안내 ▲둘째 날은 체험과 답사, 영상 교육 ▲셋째 날은 토론과 발표 및 공동체 놀이 등으로 진행된다.

위인백 5·18교육관장은 “교육관은 위대한 5·18 민주화운동을 역사속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 숨쉬는 시대적 가치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증장기계획을 수립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자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교육관 이용 및 교육 문의는 062-613-5187, 372-5180.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5·18 교육관 민주·인권체험 학습 프로그램

기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성인반
무박1일	체험과 답사	체험과 답사	답사와 발표	답사와 발표
1박2일	1일: 영상교육과 답사·체험	1일: 영상교육과 답사·체험	1일: 영상교육과 답사·체험	1일: 영상교육과 답사·체험
	2일: 발표와 토론	2일: 발표와 토론	2일: 발표와 토론	2일: 발표와 토론
2박3일	1일: 공동체게임·소개·안내	1일: 공동체게임·소개·안내	1일: 공동체게임·소개·안내	1일: 공동체게임·소개·안내
	2일: 체험과 답사·영화	2일: 체험과 답사·영화	2일: 체험과 답사·영화	2일: 체험과 답사·영화
	3일: 토론과 발표	3일: 토론과 발표	3일: 토론과 발표	3일: 토론과 발표



(사)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당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002년 가족을 잃은 슬픔과 아픔을 딛고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싸워 온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인권상’ 수상 단위로 선정됐다. 사진은 지난 2002년 당시 광주인권상 수상 당시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